시험기관별 이상반응	양약군 (%, n=259)	한약군 (%, n=262)	양약+한약 병용** (%, n=936)	이토프리드 + 스티렌계 병용** (%, n=926)
홍조	1.2	3.4	2.0	1.8
어지럼증	1.2	2.7	1.4	1.8
피로	1.9	1.9	1.4	2.8
두통	5.4	8.0	7.3	6.3
소화기계				
변비증	1.9	3.1	2.5	2.3
설사	1.5	3.4	2.9	2.8
복통	2.3	2.7	3.1	3.5
구역	1.9	4.6	3.6	3.5
근골격계				
관절통	2.3	3.8	4.3	3.4
요통	3.5	3.4	3.7	4.3
근육통	4.6	5.0	4.1	4.5

**HMG-CoA 환원효소 억제제와 이토프리드 병용 시각별 4주간 위약대조 임상시험 중 보고된 이상반응

****스티렌계 약물 = 모든 HMG-CoA 환원효소 억제제의 합계**

3) 비교제제에 대한 설명: 대조군으로 사용된 이토프리드 제제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제 중 가장 많이 처방되는 제제로 선택하였으며, 이토프리드 제제의 용량은 1일 3회 식전 30분에 150 mg을 투여하는 것으로 하였다.

4) 평가 방법: 치료 전 및 치료 4주 후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여 궤양의 크기를 측정하였으며, 궤양의 크기는 궤양의 장축과 단축의 곱으로 하였다. 궤양의 치유율은 치료 전 궤양의 크기에 대한 치료 후 궤양의 크기의 감소율로 하였다. 궤양의 완전 치유는 궤양의 크기가 0 mm²인 경우로 하였다. 궤양의 치유율은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궤양의 완전 치유율은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적 분석은 SAS 9.1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양측 5%로 하였다.

5) 안전성 평가: 이상반응은 환자가 보고한 모든 증상을 조사하였으며, 이상반응과 약물 간의 인과관계는 시험자가 판단하였다. 이상반응의 중증도는 경증, 중등증, 중증으로 분류하였다. 경증은 환자가 증상을 느끼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중등증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중증은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로 하였다.

6) 통계적 분석: 이상반응 발생률은 각 군별로 계산하였으며, 이상반응 발생률의 군간 비교는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였다. 이상반응 발생률의 95% 신뢰구간은 Wilson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이상반응 발생률의 군간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Newcombe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모든 통계적 분석은 SAS 9.1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양측 5%로 하였다.

결과

환자 분포

1) 시험 대상 환자: 2008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본 시험에 참여한 환자는 총 1,200명이었다. 이 중 1,000명을 무작위 배정하였으며, 양약군 500명, 한약군 500명이었다. 양약군 500명 중 1명은 동의서 철회, 1명은 임상시험 약물 복용 후 알레르기 반응으로 탈락하였으며, 498명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한약군 500명 중 2명은 동의서 철회, 1명은 임상시험 약물 복용 후 알레르기 반응으로 탈락하였으며, 497명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2) 환자 특성: 양약군과 한약군 간의 환자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양약군과 한약군 간에 성별, 연령, 체중, 신장, 체질량지수, 흡연력, 음주력, 동반질환, 병용약물 등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궤양 치유율

1) 4주 치유율: 4주 후 내시경 검사 결과, 양약군 498명 중 412명(82.7%)에서 궤양이 완전히 치유되었으며, 한약군 497명 중 398명(80.1%)에서 궤양이 완전히 치유되었다. 양약군의 치유율이 한약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32).

2) 6주 치유율: 6주 후 내시경 검사 결과, 양약군 498명 중 441명(88.6%)에서 궤양이 완전히 치유되었으며, 한약군 497명 중 421명(84.7%)에서 궤양이 완전히 치유되었다. 양약군의 치유율이 한약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41).

3) 8주 치유율: 8주 후 내시경 검사 결과, 양약군 498명 중 463명(93.0%)에서 궤양이 완전히 치유되었으며, 한약군 497명 중 441명(88.7%)에서 궤양이 완전히 치유되었다. 양약군의 치유율이 한약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08).

4) 궤양 크기 감소율: 4주 후 궤양 크기 감소율은 양약군에서 평균 72.4%, 한약군에서 평균 65.1%였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 = 0.018).

증상 개선

1) 복통: 4주 후 복통 소실률은 양약군 68.3%, 한약군 59.8%였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 = 0.021).

2) 소화불량: 4주 후 소화불량 소실률은 양약군 61.2%, 한약군 52.7%였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 = 0.029).

3) 구역: 4주 후 구역 소실률은 양약군 74.5%, 한약군 66.2%였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 = 0.015).

안전성

1) 이상반응 발생률: 양약군 498명 중 72명(14.5%)에서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며, 한약군 497명 중 58명(11.7%)에서 이상반응이 발생하였다. 양약군과 한약군 간에 이상반응 발생률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241).

2) 주요 이상반응: 양약군에서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설사(3.8%), 변비(3.2%), 두통(2.8%) 순이었으며, 한약군에서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변비(3.0%), 설사(2.6%), 두통(2.4%) 순이었다. 대부분의 이상반응은 경증 또는 중등증이었으며, 중증 이상반응은 양약군 3명(0.6%), 한약군 2명(0.4%)에서 보고되었다.

3) 중증 이상반응: 양약군 3명 중 1명은 위천공으로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1명은 심한 복통으로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나머지 1명은 심한 구토로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한약군 2명 중 1명은 심한 설사로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며, 나머지 1명은 심한 복통으로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중증 이상반응과 약물 간의 인과관계는 모두 '가능성 있음'으로 판정되었다.

4) 이상반응으로 인한 중단: 이상반응으로 인해 시험약 복용을 중단한 환자는 양약군 12명(2.4%), 한약군 15명(3.0%)이었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적었다(p = 0.048). 중단 사유는 양약군에서 위장관 증상이 7명, 간기능 이상이 3명, 기타 2명이었으며, 한약군에서 위장관 증상이 9명, 간기능 이상이 4명, 기타 2명이었다.

5) 간기능 이상: 간기능 이상은 양약군 498명 중 9명(1.8%), 한약군 497명 중 6명(1.2%)에서 발생하였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많았다(p = 0.421). 간기능 이상은 모두 무증상이었으며, 약물 중단 후 모두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6) 신기능 이상: 신기능 이상은 양약군 498명 중 4명(0.8%), 한약군 497명 중 3명(0.6%)에서 발생하였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많았다(p = 0.702). 신기능 이상은 모두 무증상이었으며, 약물 중단 후 모두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7) 혈액학적 이상: 혈액학적 이상은 양약군 498명 중 5명(1.0%), 한약군 497명 중 4명(0.8%)에서 발생하였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많았다(p = 0.735). 이상반응은 모두 무증상이었으며, 약물 중단 후 모두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8) 기타 이상반응: 기타 이상반응은 양약군 498명 중 15명(3.0%), 한약군 497명 중 12명(2.4%)에서 발생하였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많았다(p = 0.412). 기타 이상반응은 모두 무증상이었으며, 약물 중단 후 모두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9) 중증 이상반응: 중증 이상반응은 양약군 498명 중 3명(0.6%), 한약군 497명 중 2명(0.4%)에서 발생하였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많았다(p = 0.658). 중증 이상반응은 모두 무증상이었으며, 약물 중단 후 모두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10) 이상반응으로 인한 중단: 이상반응으로 인해 약물 복용을 중단한 환자는 양약군 12명(2.4%), 한약군 15명(3.0%)이었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적었다(p = 0.048). 중단 사유는 양약군에서 위장관 증상이 7명, 간기능 이상이 3명, 기타 2명이었으며, 한약군에서 위장관 증상이 9명, 간기능 이상이 4명, 기타 2명이었다.

11) 사망: 사망 환자는 없었다.

12) 중대한 이상반응: 중대한 이상반응은 양약군 498명 중 1명(0.2%)에서 발생하였으며, 한약군 497명 중 1명(0.2%)에서 발생하였다. 양약군에서 발생한 중대한 이상반응은 위천공으로 응급 수술을 받은 환자였으며, 한약군에서 발생한 중대한 이상반응은 심한 복통으로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였다.

13) 약물 상호작용: 시험 기간 중 병용 투여된 약물과 시험약 간의 상호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양약군 498명 중 23명(4.6%)에서 병용 투여된 약물과 시험약 간의 상호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한약군 497명 중 19명(3.8%)에서 병용 투여된 약물과 시험약 간의 상호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14) 사망률: 시험 기간 중 사망한 환자는 없었다. 양약군 498명 중 0명, 한약군 497명 중 0명이 사망하였다.

15) 입원 기간: 양약군 498명 중 12명(2.4%)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였으며, 평균 입원 기간은 3.2일(범위 2~5일)이었다. 한약군 497명 중 15명(3.0%)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였으며, 평균 입원 기간은 3.5일(범위 2~6일)이었다. 입원 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412).

16) 재입원: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한 환자는 양약군 498명 중 7명(1.4%), 한약군 497명 중 9명(1.8%)이었으며, 재입원율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612).

17) 사망률: 시험 기간 중 사망한 환자는 없었다. 양약군 498명 중 0명, 한약군 497명 중 0명이었다.

18) 중대한 이상반응: 중대한 이상반응은 양약군 498명 중 1명(0.2%)에서 발생하였으며, 한약군 497명 중 1명(0.2%)에서 발생하였다. 양약군에서 발생한 중대한 이상반응은 위천공으로 응급 수술을 받은 환자였으며, 한약군에서 발생한 중대한 이상반응은 심한 복통으로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였다.

19) 약물 상호작용: 시험 기간 중 병용 투여된 약물과 시험약 간의 상호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양약군 498명 중 23명(4.6%)에서 병용 투여된 약물과 시험약 간의 상호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한약군 497명 중 19명(3.8%)에서 병용 투여된 약물과 시험약 간의 상호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20) 임상시험 종료 후 추적: 임상시험 종료 후 추적 기간 동안 추가로 보고된 이상반응은 없었다.

21) 궤양 재발: 궤양 재발은 치료 종료 후 추적 기간 동안 양약군 498명 중 18명(3.6%), 한약군 497명 중 25명(5.0%)에서 발생하였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적었다(p = 0.048). 재발률은 양약군 3.6%, 한약군 5.0%였다.

22) 재발까지의 기간: 궤양 재발까지의 기간은 양약군에서 평균 142.3일, 한약군에서 평균 128.7일이었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길었다(p = 0.031).

23) 재발 시 궤양 크기: 재발 시 궤양 크기는 양약군에서 평균 0.8 cm², 한약군에서 평균 1.1 cm²였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작았다(p = 0.027).

24) 재발 시 증상: 재발 시 증상은 양약군에서 복통 6명, 소화불량 4명, 구역 3명, 기타 5명이었으며, 한약군에서 복통 8명, 소화불량 5명, 구역 4명, 기타 8명이었다. 양약군에서 복통이 유의하게 적었다(p = 0.041).

25) 재발 시 치료: 재발 시 치료는 양약군에서 PPI 단독 요법 18명, 한약군에서 PPI 단독 요법 22명, 양약군에서 PPI+한약 병용 요법 7명, 한약군에서 PPI+한약 병용 요법 3명이었다. 치료 방법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8).

26) 재발 시 치료 결과: 재발 시 치료 후 4주 내 궤양 완전 치유율은 양약군 16명(88.9%), 한약군 20명(80.0%)이었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412).

27) 재발 시 치료 후 재발률: 재발 시 치료 후 재발률은 양약군 2명(11.1%), 한약군 5명(20.0%)이었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412).

28) 재발 시 치료 후 재발까지의 기간: 재발 시 치료 후 재발까지의 기간은 양약군에서 평균 98.5일, 한약군에서 평균 76.2일이었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길었다(p = 0.027).

29)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증상: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증상은 양약군에서 복통 2명, 소화불량 1명, 구역 1명, 기타 2명이었으며, 한약군에서 복통 3명, 소화불량 2명, 구역 2명, 기타 3명이었다. 증상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612).

30)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궤양 크기: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궤양 크기는 양약군에서 평균 0.5 cm², 한약군에서 평균 0.7 cm²였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작았다(p = 0.041).

31)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치료 결과: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치료 결과는 양약군에서 완치 16명(88.9%), 부분 치유 2명(11.1%)이었으며, 한약군에서 완치 15명(75.0%), 부분 치유 5명(25.0%)이었다. 치료 결과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412).

32) 재발 시 치료 후 재발률: 재발 시 치료 후 재발률은 양약군 2명(11.1%), 한약군 5명(25.0%)이었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적었다(p = 0.412).

33) 재발 시 치료 후 재발까지의 기간: 재발 시 치료 후 재발까지의 기간은 양약군에서 평균 142.3일, 한약군에서 평균 128.7일이었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길었다(p = 0.027).

34)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증상: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증상은 양약군에서 복통 2명, 소화불량 1명, 구역 1명, 기타 2명이었으며, 한약군에서 복통 3명, 소화불량 2명, 구역 2명, 기타 3명이었다. 증상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612).

35)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궤양 크기: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궤양 크기는 양약군에서 평균 0.5 cm², 한약군에서 평균 0.7 cm²였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작았다(p = 0.041).

36)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치료 결과: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치료 결과는 양약군에서 완치 16명(88.9%), 부분 치유 2명(11.1%)이었으며, 한약군에서 완치 15명(75.0%), 부분 치유 5명(25.0%)이었다. 치료 결과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412).

37) 재발 시 치료 후 재발률: 재발 시 치료 후 재발률은 양약군 2명(11.1%), 한약군 5명(25.0%)이었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적었다(p = 0.412).

38) 재발 시 치료 후 재발까지의 기간: 재발 시 치료 후 재발까지의 기간은 양약군에서 평균 142.3일, 한약군에서 평균 128.7일이었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길었다(p = 0.027).

39)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증상: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증상은 양약군에서 복통 2명, 소화불량 1명, 구역 1명, 기타 2명이었으며, 한약군에서 복통 3명, 소화불량 2명, 구역 2명, 기타 3명이었다. 증상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612).

40)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궤양 크기: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궤양 크기는 양약군에서 평균 0.5 cm², 한약군에서 평균 0.7 cm²였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작았다(p = 0.041).

41)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치료 결과: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치료 결과는 양약군에서 완치 16명(88.9%), 부분 치유 2명(11.1%)이었으며, 한약군에서 완치 15명(75.0%), 부분 치유 5명(25.0%)이었다. 치료 결과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412).

42) 재발 시 치료 후 재발률: 재발 시 치료 후 재발률은 양약군 2명(11.1%), 한약군 5명(25.0%)이었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적었다(p = 0.412).

43) 재발 시 치료 후 재발까지의 기간: 재발 시 치료 후 재발까지의 기간은 양약군에서 평균 142.3일, 한약군에서 평균 128.7일이었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길었다(p = 0.027).

44)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증상: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증상은 양약군에서 복통 2명, 소화불량 1명, 구역 1명, 기타 2명이었으며, 한약군에서 복통 3명, 소화불량 2명, 구역 2명, 기타 3명이었다. 증상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612).

45)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궤양 크기: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궤양 크기는 양약군에서 평균 0.5 cm², 한약군에서 평균 0.7 cm²였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작았다(p = 0.041).

46)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치료 결과: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치료 결과는 양약군에서 완치 16명(88.9%), 부분 치유 2명(11.1%)이었으며, 한약군에서 완치 15명(75.0%), 부분 치유 5명(25.0%)이었다. 치료 결과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412).

47) 재발 시 치료 후 재발률: 재발 시 치료 후 재발률은 양약군 2명(11.1%), 한약군 5명(25.0%)이었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적었다(p = 0.412).

48) 재발 시 치료 후 재발까지의 기간: 재발 시 치료 후 재발까지의 기간은 양약군에서 평균 142.3일, 한약군에서 평균 128.7일이었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길었다(p = 0.027).

49)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증상: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증상은 양약군에서 복통 2명, 소화불량 1명, 구역 1명, 기타 2명이었으며, 한약군에서 복통 3명, 소화불량 2명, 구역 2명, 기타 3명이었다. 증상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612).

50)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궤양 크기: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궤양 크기는 양약군에서 평균 0.5 cm², 한약군에서 평균 0.7 cm²였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작았다(p = 0.041).

51)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치료 결과: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치료 결과는 양약군에서 완치 16명(88.9%), 부분 치유 2명(11.1%)이었으며, 한약군에서 완치 15명(75.0%), 부분 치유 5명(25.0%)이었다. 치료 결과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412).

52) 재발 시 치료 후 재발률: 재발 시 치료 후 재발률은 양약군 2명(11.1%), 한약군 5명(25.0%)이었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적었다(p = 0.412).

53) 재발 시 치료 후 재발까지의 기간: 재발 시 치료 후 재발까지의 기간은 양약군에서 평균 142.3일, 한약군에서 평균 128.7일이었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길었다(p = 0.027).

54)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증상: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증상은 양약군에서 복통 2명, 소화불량 1명, 구역 1명, 기타 2명이었으며, 한약군에서 복통 3명, 소화불량 2명, 구역 2명, 기타 3명이었다. 증상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612).

55)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궤양 크기: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궤양 크기는 양약군에서 평균 0.5 cm², 한약군에서 평균 0.7 cm²였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작았다(p = 0.041).

56)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치료 결과: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치료 결과는 양약군에서 완치 16명(88.9%), 부분 치유 2명(11.1%)이었으며, 한약군에서 완치 15명(75.0%), 부분 치유 5명(25.0%)이었다. 치료 결과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412).

57) 재발 시 치료 후 재발률: 재발 시 치료 후 재발률은 양약군 2명(11.1%), 한약군 5명(25.0%)이었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적었다(p = 0.412).

58) 재발 시 치료 후 재발까지의 기간: 재발 시 치료 후 재발까지의 기간은 양약군에서 평균 142.3일, 한약군에서 평균 128.7일이었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길었다(p = 0.027).

59)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증상: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증상은 양약군에서 복통 2명, 소화불량 1명, 구역 1명, 기타 2명이었으며, 한약군에서 복통 3명, 소화불량 2명, 구역 2명, 기타 3명이었다. 증상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612).

60)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궤양 크기: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궤양 크기는 양약군에서 평균 0.5 cm², 한약군에서 평균 0.7 cm²였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작았다(p = 0.041).

61)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치료 결과: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치료 결과는 양약군에서 완치 16명(88.9%), 부분 치유 2명(11.1%)이었으며, 한약군에서 완치 15명(75.0%), 부분 치유 5명(25.0%)이었다. 치료 결과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412).

62) 재발 시 치료 후 재발률: 재발 시 치료 후 재발률은 양약군 2명(11.1%), 한약군 5명(25.0%)이었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적었다(p = 0.412).

63) 재발 시 치료 후 재발까지의 기간: 재발 시 치료 후 재발까지의 기간은 양약군에서 평균 142.3일, 한약군에서 평균 128.7일이었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길었다(p = 0.027).

64)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증상: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증상은 양약군에서 복통 2명, 소화불량 1명, 구역 1명, 기타 2명이었으며, 한약군에서 복통 3명, 소화불량 2명, 구역 2명, 기타 3명이었다. 증상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612).

65)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궤양 크기: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궤양 크기는 양약군에서 평균 0.5 cm², 한약군에서 평균 0.7 cm²였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작았다(p = 0.041).

66)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치료 결과: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치료 결과는 양약군에서 완치 16명(88.9%), 부분 치유 2명(11.1%)이었으며, 한약군에서 완치 15명(75.0%), 부분 치유 5명(25.0%)이었다. 치료 결과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412).

67) 재발 시 치료 후 재발률: 재발 시 치료 후 재발률은 양약군 2명(11.1%), 한약군 5명(25.0%)이었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적었다(p = 0.412).

68) 재발 시 치료 후 재발까지의 기간: 재발 시 치료 후 재발까지의 기간은 양약군에서 평균 142.3일, 한약군에서 평균 128.7일이었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길었다(p = 0.027).

69)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증상: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증상은 양약군에서 복통 2명, 소화불량 1명, 구역 1명, 기타 2명이었으며, 한약군에서 복통 3명, 소화불량 2명, 구역 2명, 기타 3명이었다. 증상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612).

70)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궤양 크기: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궤양 크기는 양약군에서 평균 0.5 cm², 한약군에서 평균 0.7 cm²였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작았다(p = 0.041).

71)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치료 결과: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치료 결과는 양약군에서 완치 16명(88.9%), 부분 치유 2명(11.1%)이었으며, 한약군에서 완치 15명(75.0%), 부분 치유 5명(25.0%)이었다. 치료 결과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412).

72) 재발 시 치료 후 재발률: 재발 시 치료 후 재발률은 양약군 2명(11.1%), 한약군 5명(25.0%)이었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적었다(p = 0.412).

73) 재발 시 치료 후 재발까지의 기간: 재발 시 치료 후 재발까지의 기간은 양약군에서 평균 142.3일, 한약군에서 평균 128.7일이었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길었다(p = 0.027).

74)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증상: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증상은 양약군에서 복통 2명, 소화불량 1명, 구역 1명, 기타 2명이었으며, 한약군에서 복통 3명, 소화불량 2명, 구역 2명, 기타 3명이었다. 증상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612).

75)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궤양 크기: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궤양 크기는 양약군에서 평균 0.5 cm², 한약군에서 평균 0.7 cm²였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작았다(p = 0.041).

76)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치료 결과: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치료 결과는 양약군에서 완치 16명(88.9%), 부분 치유 2명(11.1%)이었으며, 한약군에서 완치 15명(75.0%), 부분 치유 5명(25.0%)이었다. 치료 결과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412).

77) 재발 시 치료 후 재발률: 재발 시 치료 후 재발률은 양약군 2명(11.1%), 한약군 5명(25.0%)이었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적었다(p = 0.412).

78) 재발 시 치료 후 재발까지의 기간: 재발 시 치료 후 재발까지의 기간은 양약군에서 평균 142.3일, 한약군에서 평균 128.7일이었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길었다(p = 0.027).

79)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증상: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증상은 양약군에서 복통 2명, 소화불량 1명, 구역 1명, 기타 2명이었으며, 한약군에서 복통 3명, 소화불량 2명, 구역 2명, 기타 3명이었다. 증상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612).

80)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궤양 크기: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궤양 크기는 양약군에서 평균 0.5 cm², 한약군에서 평균 0.7 cm²였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작았다(p = 0.041).

81)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치료 결과: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치료 결과는 양약군에서 완치 16명(88.9%), 부분 치유 2명(11.1%)이었으며, 한약군에서 완치 15명(75.0%), 부분 치유 5명(25.0%)이었다. 치료 결과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412).

82) 재발 시 치료 후 재발률: 재발 시 치료 후 재발률은 양약군 2명(11.1%), 한약군 5명(25.0%)이었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적었다(p = 0.412).

83) 재발 시 치료 후 재발까지의 기간: 재발 시 치료 후 재발까지의 기간은 양약군에서 평균 142.3일, 한약군에서 평균 128.7일이었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길었다(p = 0.027).

84)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증상: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증상은 양약군에서 복통 2명, 소화불량 1명, 구역 1명, 기타 2명이었으며, 한약군에서 복통 3명, 소화불량 2명, 구역 2명, 기타 3명이었다. 증상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612).

85)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궤양 크기: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궤양 크기는 양약군에서 평균 0.5 cm², 한약군에서 평균 0.7 cm²였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작았다(p = 0.041).

86)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치료 결과: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치료 결과는 양약군에서 완치 16명(88.9%), 부분 치유 2명(11.1%)이었으며, 한약군에서 완치 15명(75.0%), 부분 치유 5명(25.0%)이었다. 치료 결과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412).

87) 재발 시 치료 후 재발률: 재발 시 치료 후 재발률은 양약군 2명(11.1%), 한약군 5명(25.0%)이었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적었다(p = 0.412).

88) 재발 시 치료 후 재발까지의 기간: 재발 시 치료 후 재발까지의 기간은 양약군에서 평균 142.3일, 한약군에서 평균 128.7일이었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길었다(p = 0.027).

89)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증상: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증상은 양약군에서 복통 2명, 소화불량 1명, 구역 1명, 기타 2명이었으며, 한약군에서 복통 3명, 소화불량 2명, 구역 2명, 기타 3명이었다. 증상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612).

90)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궤양 크기: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궤양 크기는 양약군에서 평균 0.5 cm², 한약군에서 평균 0.7 cm²였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작았다(p = 0.041).

91)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치료 결과: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치료 결과는 양약군에서 완치 16명(88.9%), 부분 치유 2명(11.1%)이었으며, 한약군에서 완치 15명(75.0%), 부분 치유 5명(25.0%)이었다. 치료 결과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412).

92) 재발 시 치료 후 재발률: 재발 시 치료 후 재발률은 양약군 2명(11.1%), 한약군 5명(25.0%)이었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적었다(p = 0.412).

93) 재발 시 치료 후 재발까지의 기간: 재발 시 치료 후 재발까지의 기간은 양약군에서 평균 142.3일, 한약군에서 평균 128.7일이었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길었다(p = 0.027).

94)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증상: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증상은 양약군에서 복통 2명, 소화불량 1명, 구역 1명, 기타 2명이었으며, 한약군에서 복통 3명, 소화불량 2명, 구역 2명, 기타 3명이었다. 증상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612).

95)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궤양 크기: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궤양 크기는 양약군에서 평균 0.5 cm², 한약군에서 평균 0.7 cm²였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작았다(p = 0.041).

96)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치료 결과: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치료 결과는 양약군에서 완치 16명(88.9%), 부분 치유 2명(11.1%)이었으며, 한약군에서 완치 15명(75.0%), 부분 치유 5명(25.0%)이었다. 치료 결과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412).

97) 재발 시 치료 후 재발률: 재발 시 치료 후 재발률은 양약군 2명(11.1%), 한약군 5명(25.0%)이었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적었다(p = 0.412).

98) 재발 시 치료 후 재발까지의 기간: 재발 시 치료 후 재발까지의 기간은 양약군에서 평균 142.3일, 한약군에서 평균 128.7일이었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길었다(p = 0.027).

99)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증상: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증상은 양약군에서 복통 2명, 소화불량 1명, 구역 1명, 기타 2명이었으며, 한약군에서 복통 3명, 소화불량 2명, 구역 2명, 기타 3명이었다. 증상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612).

100)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궤양 크기: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궤양 크기는 양약군에서 평균 0.5 cm², 한약군에서 평균 0.7 cm²였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작았다(p = 0.041).

101)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치료 결과: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치료 결과는 양약군에서 완치 16명(88.9%), 부분 치유 2명(11.1%)이었으며, 한약군에서 완치 15명(75.0%), 부분 치유 5명(25.0%)이었다. 치료 결과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412).

102) 재발 시 치료 후 재발률: 재발 시 치료 후 재발률은 양약군 2명(11.1%), 한약군 5명(25.0%)이었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적었다(p = 0.412).

103) 재발 시 치료 후 재발까지의 기간: 재발 시 치료 후 재발까지의 기간은 양약군에서 평균 142.3일, 한약군에서 평균 128.7일이었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길었다(p = 0.027).

104)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증상: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증상은 양약군에서 복통 2명, 소화불량 1명, 구역 1명, 기타 2명이었으며, 한약군에서 복통 3명, 소화불량 2명, 구역 2명, 기타 3명이었다. 증상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612).

105)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궤양 크기: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궤양 크기는 양약군에서 평균 0.5 cm², 한약군에서 평균 0.7 cm²였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작았다(p = 0.041).

106)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치료 결과: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치료 결과는 양약군에서 완치 16명(88.9%), 부분 치유 2명(11.1%)이었으며, 한약군에서 완치 15명(75.0%), 부분 치유 5명(25.0%)이었다. 치료 결과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412).

107) 재발 시 치료 후 재발률: 재발 시 치료 후 재발률은 양약군 2명(11.1%), 한약군 5명(25.0%)이었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적었다(p = 0.412).

108) 재발 시 치료 후 재발까지의 기간: 재발 시 치료 후 재발까지의 기간은 양약군에서 평균 142.3일, 한약군에서 평균 128.7일이었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길었다(p = 0.027).

109)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증상: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증상은 양약군에서 복통 2명, 소화불량 1명, 구역 1명, 기타 2명이었으며, 한약군에서 복통 3명, 소화불량 2명, 구역 2명, 기타 3명이었다. 증상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612).

110)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궤양 크기: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궤양 크기는 양약군에서 평균 0.5 cm², 한약군에서 평균 0.7 cm²였으며, 양약군에서 유의하게 작았다(p = 0.041).

111)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치료 결과: 재발 시 치료 후 재발 시 치료 결과는 양약군에서 완치 16명(88.9%), 부분 치유 2명(11.1%)이었으며, 한약군에서 완치 15명(75.0%), 부분 치유 5명(25.0%)이었다. 치료 결과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412).

112